중견건설사 "가자! 해외로"

건설경기 침체 '악재' 극복…사업 다각화 모색

대주건설 등 해외 주택시장 공략 박차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견건설사들이 새해 벽두부터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지난해 국내 주택사업의 부진을 만회하는 한편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반값 아파트 공급 등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시장 공략을 필두로 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대주건설과 월드건설, 우림건설, 현진 등 중견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올들어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리엇 타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엘리엇 타워'는 뉴질랜드 최고층인 65층(210m) 규모로, 인근 '스카이타워'와 함께 오클랜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주건설은 지난해 뉴질랜드 홉슨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홉슨 '피오레'아파트 119가구를 국내에서 분양해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는 호주와 캐나다 등에도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등 '블루 오션(Blue Ocean)'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월드건설도 캐나다와 미국 등 선진국 주택시장 공략에 한창이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 인근에 주택부지 8만평을 매입한 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30만평을 사들여 각각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사이판에는 현재 운영중인 호텔·리조트 외에도 향후 휴양형 콘도미니엄 개발을 위해 50만평을 추가로 매입했다.

아시아와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도 줄을 잇고 있다.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2조원이 넘는 대형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중이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을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현진도 올해를 해외시장 진출 원년으로 삼고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올해 두바이 비즈니스베이와 중국 쿤산, 베트남 호찌민에 주상복합아파트 총 3천200여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일토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짓고 있는 아파트 2차 분양(500가구)에 들어가고, 첫 진출지인 일본 동경의 소규모 빌딩을 매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의 90% 이상이 주택부문에 집중돼 주택경기 활성화 여부가 해당 기업의 경영 지표로 직결된다"며 "최근 국내 주택시장 경기를 감안하면 경영 다각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2007 산업별 기상도

조선·반도체·기계 '쾌청' 정보통신·가전은 '흐림'

올해 국내 기간산업 가운데 조선과 반도체, 일반기계업종은 두 자릿수의 생산 증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동차는 생산량이 400만대선에 이르고 성장세도 다소 회복되겠지만 내수에서는 수입차 시장의 고성장세가 이어지며 수입차의 내수 점유율이 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 산업별 기상도

10%이상 / 5~10% / 0~5% / 0%이하 — 단위: %(전년동기대비)

	생산	내수	수출	수입
조선	13.1	-	22.1	-
반도체	11.8	9.3	10.7	6.7
일반기계	10.6	10.7	13.1	14.1
디스플레이	9.2	5.7	10.5	12.2
자동차	4.7	4.3	12.0	21.5
철강	3.8	2.7	6.7	6.5
중전기기·전선	2.3	1.6	10.2	5.9
석유화학	3.3	-0.7	5.5	-0.5
시멘트	-1.1	-1.0	1.0	1.5
정보통신	-3.0	3.7	-0.5	7.4
가전	-3.1	2.5	3.5	10.8
섬유	-6.1	-3.0	-5.5	9.5

자료/ 산업자원부 연합뉴스그래픽

산업자원부는 8일 12개 주력산업의 '2006년 실적 및 2007년 전망'자료를 통해 이렇게 예상했다.

산자부는 전년에 이어 호황이 이어질 업종으로 반도체와 조선,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업종를 꼽았다.

산자부는 반도체가 신흥시장의 개인용 컴퓨터(PC) 수요 증대와 '윈도 비스타' 출시에 따른 D램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액이 올해보다 11.8% 증가한 45조7천100억원에 이르고 수출액은 410억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력과 안정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고 있는 조선산업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3.1% 늘어난 1천300만 CGT(보정 총톤)에 이르고 지난해 221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는 27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전망이다.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일반기계 생산액도 10.6% 증가한 91조1천620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증가율이 7.7%에 그쳤던 수출증가율도 13.1%로 회복되며 270억 달러선이 될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건설업 체감경기 4개월만에 악화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4개월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78.7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연속된 지수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또한 기준선인 100에 못미쳐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I가 100을 초과하면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호전됐음을, 100 미만이면 악화됐음을 각각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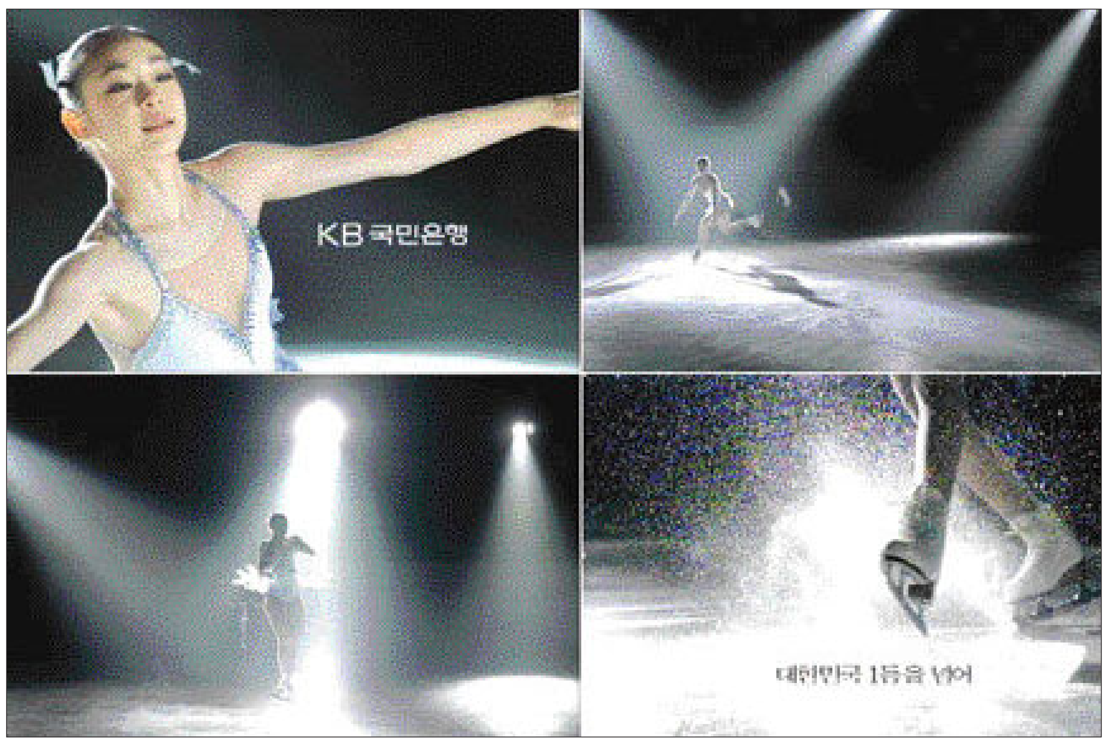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90.0)가 지난달에 비해 10.0포인트 하락했고, 중견업체도 6.7포인트 하락한 85.0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업체는 5.7포인트 상승해 58.3을 기록했으나 대형·중견업체보다도 지수가 낮았다.

지난 달 공사물량지수도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80.7에 그쳐, 물량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 전망치 101.4를 크게 밑도는 80.3에 머물러 연말 공공발주 토목물량이 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금조달지수와 공사대금수금지수는 각각 8.9포인트와 3.1포인트씩 하락한 93.3과 83.2로 나타났으며, 반면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14.5와 110.2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김연아 모델' 광고 시작



국민은행은 시니어 피겨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 이미지 광고를 8일 시작했다. /연합뉴스

생보사 상장자문위 해체·재구성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난 5일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상장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상장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장안은 업계 편향적"이라며 "정부는 상장위를 해체하고 조속히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위를 새로 구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상장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들은 제대로 된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보사의 결손보전에 동원되는 등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왔다"며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생보사들은 한미FTA 등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금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은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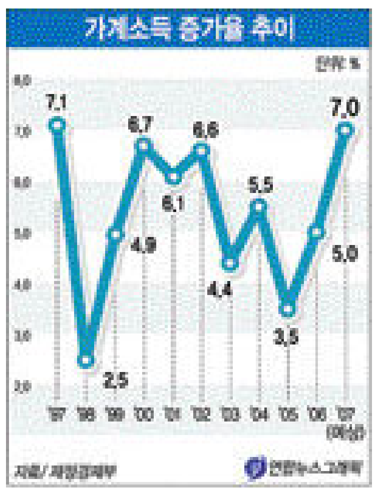
가계소득 늘어도 소비는 줄어

재경부, 10년만에 최고 7% 증가 전망

부채도 늘어 소비 증가율 3.9%로 둔화

올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기업의 수익성 개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 배당소득의 추세적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의 7.1% 이후 가장 높은 가계소득 증가율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결과와 자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계정상의 가계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자소득, 순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재경부는 가계소득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임금소득은 유가·환율 등의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임금소득 증가율 전망치는 2004년의 7.7% 이후 가장 높다.

자영업자 소득은 공급과잉, 대기업과의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경기 정상화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소폭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은 4.0%로 예상된다.

순재산소득 증가율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와 배당소득의 추세적인 증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8.0%)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최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교역조건 악화 폭이 축소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하지만 높은 가계소득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지난해 4.2%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소비 증가율은 올해 3.9%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변호사·호화 업종 부가세 집중 관리

국세청, 3만7천명 대상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성공보수 수입액 누락이 많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쌍춘년 특수를 본 예식장 등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명, 법인 44만명 등 모두 468만명"이라며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월 1기 부가세 신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직 3천명, 유흥업 4천명, 음식점 1만명, 서비스 5천명, 유통 7천명, 자영업법인 3천명, 기타 5천명 등 3만7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성공보수액이나 착수금 신고누락 ▲변리사는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누락 ▲건축사는 설계비 수입액 누락이나 비용가공계상 ▲법무사는 수수료 누락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쌍춘년 특수로 호황을 맞았던 예식장업 및 혼수용품점과 사행성 게임장, 부동산업,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 집단상가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수입의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부대시설 임대수입이나 외상 매출금 누락, 위장계산서 교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현대에프에스	제품개발담당 직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0	062-959-5114
그린텔	KTF 동광주멤버스플라자 정규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1	042-223-4900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360-0503
서울검사㈜	2007년 정규직 비파괴검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1	062-369-0790
KBSJOB	광주 금호생명 대표전화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1	02-518-3250
INBET(인베트)	웹프로그램 실무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12	062-367-9063
일우건업㈜	건설현장 안전 관리자 남자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2-547-3002
㈜담양온천	[담양리조트]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4	061-380-5114
㈜스마트정보	영업 관리 및 경리/회계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350-8500
㈜오케이아웃도어닷컴	등산용품매장 광주 충장점/전남 순천점 매장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2-2278-8797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인력 채용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1/16	062-350-2401
㈜현대코리안	정규직 생산직 및 경리직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7	062-956-6852
포철기연㈜	각 부문 신입 및 경력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061-798-3220
㈜엔오리온	석유화학 기계설비/해외/국내 영업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19	061-682-550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크루즈선·개인서비스용 로봇…

産銀 '2010년대 산업별 유망기술' 선정

크루즈선, 개인서비스용로봇, 무인항공기….

산업은행은 8일 발간한 '2010년대 주요 산업별 유망성장기술과 육성전략' 책자에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유망성장 기술을 선정했다.

산은이 선정한 유망기술은 애니메이션, 이동통신, 3D(3차원)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다목적헬기, 탄소나노튜브, 바이오 인공장기,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자동차, 초대형 컨테이너 등 14개 분야의 50개 기술이다.

이 가운데 LCD·DDI(디스플레이 구동칩)·메모리반도체·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4개 기술은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정도로 최고 수준인 '탁월' 단계에 있으나 크루즈선 기술은 '취약' 단계에 있다고 산은은 분석했다.

8개는 '우수', 13개는 '양호', 24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인하 임박

정통부, 주내 결론

군입대로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여부가 금주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입대 자의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 인하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 사용대가로 분기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F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번호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매달 3천850원을, LG텔레콤은 4천400원을 받고 있다.

이 중 SKT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월 800원, KTF는 약 540원, LGT는 약 500원이다. 따라서 인하폭은 월 500원~8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연합뉴스

DTI 규제 확대 대안 'e모기지론' 관심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전용 주택대출상품인 e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도 측면만 고려할 경우 공사의 e모기지론은 DTI 규제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공사 상품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만 하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될 기미를 보이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e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공사의 대출 한도는 시중은행에 비해 작을 가능성이 크다. LTV 측면에서 e모기지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70%로 시중은행의 60%(6억원 초과는 40%)에 비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공사는 시중은행에 앞서 이미 DTI를 시행 중이다.

신청 자격도 공사가 시중은행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편이다. 공사는 소득이 있는 만 20~65세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결국 연소득이 많아 DTI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